

수산물식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 대폭 확대

- 50종류의 수출 인증에 대하여 종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225개사 지원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2026년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의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 바이어, 국가별 요청사항에 따라 수출 요건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비건, 할랄, 윤리경영 등)의 취득을 지원하여, 우리 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지원하는 국제인증 종류(48→50종)와 지원업체 수(157→225개사)를 대폭 확대하고, 인증 종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종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제도 등 국가별 수출 요건 대응을 위한 '해외 식품 규격 인증(34종)*'과 코스트코 등 해외 대형 유통업체 등이 요구하는 '수출 전략 인증(16종)**'으로 구분하여 총 50종을 지원한다.

* 해외 식품 규격 인증(34종) : 할랄(11), 코셔(6), 친환경(5), 품질규격(9, 비건, Non GMO, 글루텐프리 등), FDA, FSSAI, **EFSA**(26년 신규)

** 수출 전략인증(16종) : 지속가능한 수산물(5종, MSC, ASC 등), 이력추적(4종, MSC-CoC, ASC-CoC 등), 윤리경영(4종, ESG, 신규 **SA8000** 등), FSVP, VQIP, AEO

수산물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인 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이라면 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 6일(금)까지 수산물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가별 소비자의 기호, 대형 바이어의 요구 등이 우리 수산물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는 국제 인증 취득 지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식품 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51-773-5480)
	수출가공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83)

참고

2026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출인증 취득 지원
- 모집기간 : 2월 5일(목) ~ 3월 6일(금) / 약 1개월간
- 지원대상 : 수산물식품 수출을 위한 생산·제조·유통 업체 등
- 지원내용 : 50종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원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최대 50%, 중견·중소 80%

□ 지원인증

- 해외 식품 규격 인증(34종)

구분	인증명		구분	인증명	
할랄 (11종)	1	BPJPH(MUI)	친환경 (5종)	18	USDA-NOP
	2	Warees		19	Organic EU
	3	JAKIM		20	GLOBAL GAP
	4	APHC		21	JAS
	5	KMF		22	China Organic
	6	KHA(KOREA)	품질 규격 (9종)	23	SQF
	7	ESMA		24	FSSC22000
	8	IHC		25	GMP
	9	HI-PVT		26	TRCU(EAC)
	10	AHIK		27	Gluten Free
	11	KTC		28	Non GMO
코셔 (6종)	12	OK		29	Vegetarian
	13	Star-K		30	BRCS
	14	OU	등록 (3종)	31	IFS
	15	KOF-K		32	FDA
	16	cRc		33	FSSAI
	17	SKS		34	EFSA(26년 신규)

- 수출 전략 인증(16종)

구분	인증명		구분	인증명	
지속가능한 수산물 (5종)	1	MSC	이력추적성 (4종)	9	MSC CoC
	2	ASC		10	ASC CoC
	3	ASC-MSC		11	SWD CoC
	4	BAP		12	FOS CoC
	5	FOS	윤리경영 (4종)	13	BSCI
통관 (3종)	6	FSVP		14	SMETA
	7	VQIP		15	ESG
	8	AEO		16	SA8000(26년 신규)